

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



제2386호 2025. 2. 2. **주님 봉헌 축일 (축성 생활의 날)**

제1독서 : 말라키 예언서 3,1-4

제2독서 :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2,14-18

복 음 : 루카 복음서 2,22-40 또는 2,22-32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chota_littlemm@naver.com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항상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겸허히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2024년 5월 26일 제1차 세계 어린이의 날 미사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그림 _ 가브리엘라 수녀님



오늘의 미사

- + 화 답 송 ◎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 알렐루야.
- + 영성체송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우리 주일학교 이야기



난곡동 성당 어린이들의

'동방박사 삼왕방문'

김채원 안드레아 선생님

새해를 맞아 초등부 난곡동 초등부 주일학교 어린이와 함께 뜻깊은 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동방박사 삼왕방문' 활동으로 난곡동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교사들은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노래를 선물하고, 새해에도 평화롭게 지내시도록 인사를 드리면서 따뜻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보여주신 환한 미소와 감사 인사에 아이들도 처음엔 긴장했지만 나중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요양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노래 선물과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열정적으로 노래하며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아이들의 노래를 들으며 손을 흔들어 주시거나 함께 따라 부르며 즐거워하셨고, 요양원에서도 단체 방문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동방 박사 삼왕방문' 활동은 새해의 시작에 난곡동 주일학교 가족 모두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쁨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과 사랑의 활동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말씀

봉헌하는 생활



11지구 도곡동 성당
신승우 도미니코 신부님

✦ 찬미 예수님!

작은 마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탄절이 있고서 사십 일째 되는 봉헌 축일이에요.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성전에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셨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 봉헌 축일이에요.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데려가 성전에서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기를 성전에 봉헌하는 것이 살아 있는 아기를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 특히 인간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함으로써 그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하느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정화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봉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봉헌은 미사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봉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그 모습을 보신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정성과 마음을 모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느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살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Q.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① 제물로 바치기 위해
- ② 예수님의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하느님께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 ③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
- ④ 아기가 올바르게 성장하여 하느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

제29회 작은마음 잔치 잔치 수상작



모두모두 소중한해

해방촌 성당 5학년 오은서 크리스티나

예수님을 처음 모신 날

삼성산 성당
3학년 강지우 마리스텔라

오늘은 설레이고 기다렸던 성체를 모셨다.
기도를 하면 들어준다고 하셔서
"아이들이 되게 행복주세요." 하고 기도 드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너무 기뻐했다.



오늘은 설레이고 기다렸던
성체를 모셨다.
기도를 하면 들어준다고 하셔서
아이들이 되게 행복주세요 하고
기도 드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너무 기뻐했다.